

창립 11주년 기념토론회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후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최 |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주 제】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 제 발 표】

김 미 령 교수	5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문】

박 양 숙 소장	39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우 보 환 본부장	46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황 진 수 명예교수	59
(한성대학교)	
박 소 영 사무관	7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부 록】 본 연구회 소개.....	75
---------------------	----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4) 격 려 사이 갑 산 범사회시만단체연합 상임대표
- 5) 단체기념사진모든 참석자

2 부

좌장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 토 론

.....박 양 속 소장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박 소 영 사무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참관자 질의 / 응답

○ 총 마무리 발언

[주 제 발 표]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한국/재미한인 노년학자 학술회 공동의장

GSA Fellow: 미국세계노년학회(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한국/재미한인 노년학자 학술회 의장(KKAA-IG-GSA) (전)

사회부총리 사회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19 이후의 활성화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고령사회연구소장

Contents

- 1 서론
- 2 자원봉사의 개념과 이론
- 3 한국의 노인자원봉사
- 4 해외 자원봉사의 현황
- 5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현황
- 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및
코로나19 이후의 활성화 방안

1. 서 론

1) 인구의 고령화

- 한국: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에 대한 관심 증가
- 2018년 고령사회 : 14.3%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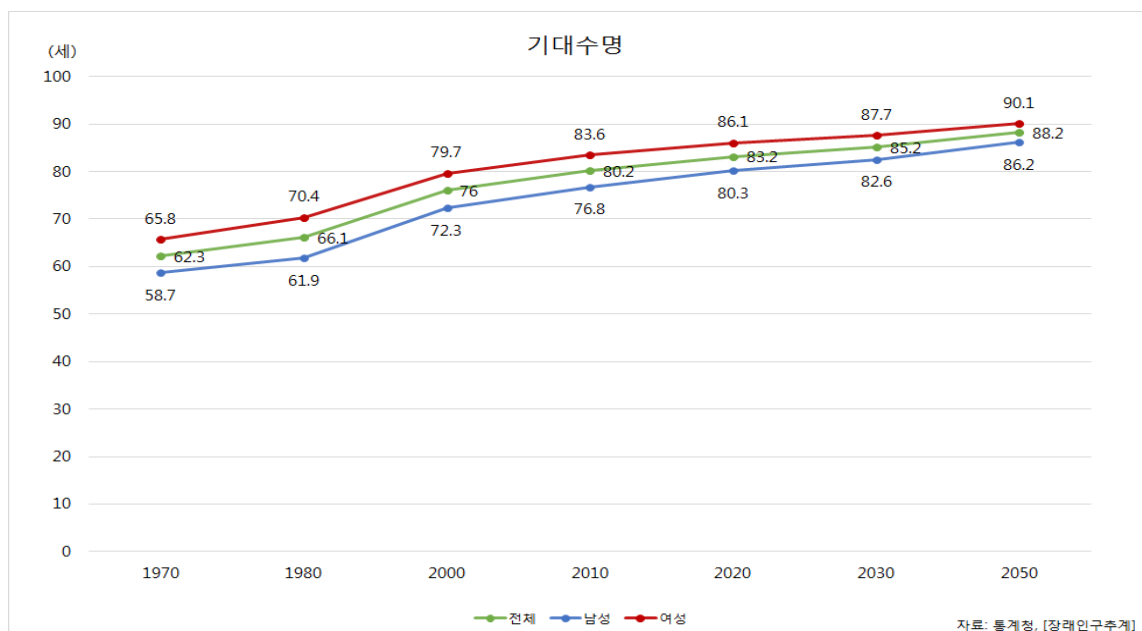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 현황 비교 (년도)

국가	도달 년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5	18	7
일본	1970	1994	2005	24	1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5	2027	46	52
미국	1942	2014	2028	72	14
독일	1932	1972	2008	40	36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출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6)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2015 스웨덴: 통계청을 바탕으로 재구성

* 본 발표자료는 2019년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 프로젝트를 내용을 요약, 수정 보완한 것임

2) 기대수명



3) 공식적 은퇴연령

- 인구의 고령화에 부응하여 노인들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 공식적 은퇴연령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은퇴 후 20-30 여 년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 필요한 시점
- 노인들의 새로운 역할인 노인자원봉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OECD국 2016년 평균 은퇴연령 남성 65.8세 여성 65.5세(OECD, 2017)
- 스웨덴: 61세부터 본인이 은퇴시기 선택할 수 있음.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 할 수 있음.
그 결과 평균 은퇴연령은 64.5세(Newsis, 2019)
- 미국: 1986년 은퇴연령이 없어졌으며, 영국도 없어졌고
- 독일: 2029년까지 점차 67세로 늦춤
- 일본: 2013년부터 원하면 65세까지
- 한국: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60세

2. 자원봉사의 개념과 이론

1) 광의와 협의의 자원봉사 개념-1

- 자원봉사는 복잡한 현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개념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U.N., 2018)

자원봉사 범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자원봉사(광의)		
자원봉사(협의)		시민 서비스 활동
무급	실비/활동비	유급(수당)
단순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	전문가 자원봉사 예) 재능 나눔, 미국의 AmeriCorps

- Adler와 Goggin(2005):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는 사회참여로 “다른 사람의 삶의 질 개선이나...지역사회 참여”(p.236)
- 시민참여는 자원봉사, 디지털참여, 비공식적 도움과 기부 포함(헨릭슨 외, 2019):
- Putnam(2000): 비공식적 사회활동, 공식적 사회활동, 지역사회참여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모든 영역을 시민참여 즉 자원봉사로 봄

1) 광의와 협의의 자원봉사 개념-2

- 국제노동기구(ILO): 자원봉사의 개념을 “비강제적 무급(유급)근로”: 개인이 기관이나 집밖에서 하는 행동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시간”(ILO, 2011, OECD, 2015, p.19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

- 노인일자리는 유급이라 무급인 협의의 자원봉사와는 구분되지만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로 광의의 자원봉사영역임.

특히,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는 광의의 자원봉사로도 정의 가능,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는 협의의 자원봉사

-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음
;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시민 서비스 활동영역 즉 광의의 자원봉사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는 무보수며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한국의 자원봉사 통념은 시민참여의 협의 개념

2) 자원봉사 이론-1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이론 : 자원봉사과정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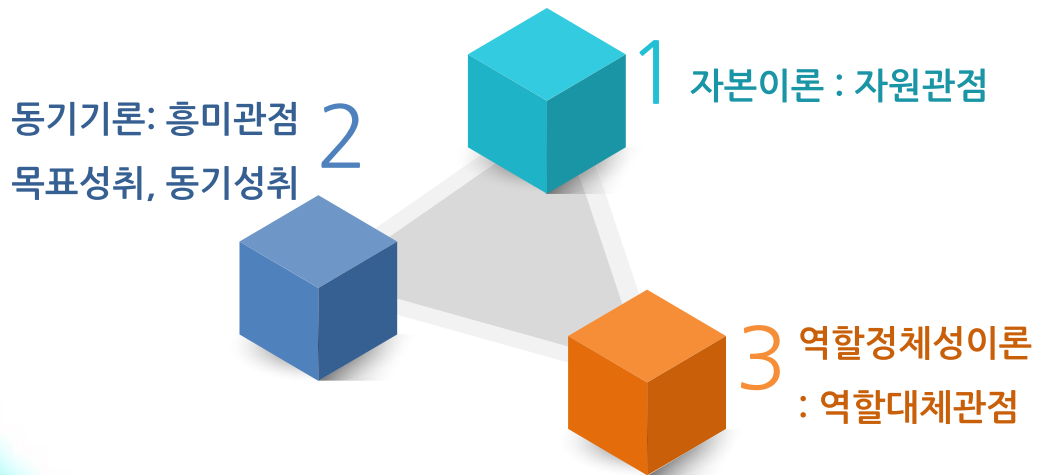
-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

-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 자원봉사자를 구성하고 관리하며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근간을 마련해줘야 함.

이처럼 자원봉사는 미시(micro), 중간(meso), 거시(macro)의 세 영역이 함께 해야 하는 활동.

2) 자원봉사 이론-2

❖ 자원봉사 주체인 자원봉사자에 초점 맞춘 자원봉사과정이론 (process model) : 자본이론, 동기이론, 역할정체성 이론



2) 자원봉사 이론-3

*자원봉사의 세가지 이론적 틀(Lancee와 Radl, 2014)

1) 자원관점 : 자원봉사를 하기위해서는 자본 즉 기술이 있어야 함
---> 자본관점으로 설명 가능

2) 흥미관점 : 자원봉사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동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특별한 목표 성취; 동기관점과 일치

- cost and benefit의 입장
- 동기를 성취하였을 경우 자원봉사를 계속
- 관심이 변하면 자원봉사 행동도 변화

3) 역할대체관점

- 활동대체의 측면으로도 봄.
- 역할이론, 역할정체성이론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

2) 자원봉사 이론-4

① 인적자본(Human Capital) : 교육, 수입, 건강

.사회자본이 많을 가능성

② 사회자본(Social Capital): · Putnam(1993)이 처음 개념화

· 사회적 관계 : 정보, 신뢰 등의 자원 제공

*사회자본의 두 가지 측면: 원인과 결과

: 사회자본 통해 자원봉사, 자원봉사 통해 사회자본형성

- 자본의 상호작용: 인적자본은 사회적 자본과 결합할 때 효과 증가

③ 문화자본:

종교 : 대표적 문화자본, 자원봉사를 준비하게 만듦

<--종교를 통한 박애정신이나 사회적 관계(네트워크형성)

2) 자원봉사 이론-5

(2) 동기모델 :

- 사람들이 왜 자원봉사를 하는가?

무엇이 자원봉사를 계속하게 하는가?를 설명

· 동기가 성취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역할정체성 형성

- 두 가지 상반된 동기에 근거:

· 이타적인 것(Marx, 1999)—미국의 자원봉사의 근간

·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이기주의(Pushkar et al., 2002):

-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스웨덴의 자원봉사모델

⇒ 자원봉사의 효과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음(OECD, 2015):

· 이타적인 동기 --> 만족감, 건강에 도움, 역할정체성 얻기도

· 이기적 동기 -->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계도 맺으며, 선한 영향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됨

자원봉사대상/자원봉사자 모두 이익을 얻게 됨—자원봉사 계속

2) 자원봉사 이론-6

(2) 동기모델 : 기능주의모델

- 기능주의 이론 :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에 만족 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함
→ 자원봉사경험이 동기와 맞을 때 만족감,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됨
 - 기능주의 이론은 cost-benefit 관점
(Clary et al. 1998, 동기: 가치, 이해, 사회성, 경력, 보호, 강화)
 - 자원봉사를 통하여 유익을 얻음
- 자원봉사동기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Forbes et al. 2014).

2) 자원봉사 이론-7

(3) 역할정체성이론

역할정체성 : 사회적 활동을 통해 형성(김미령, 2014)
자원봉사라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므로 자원봉사자로서의 가치나 역할을 인식 → 역할정체성 형성 (Harlow & Cantor, 1996).

-새로운 역할과 생성감을 통한 노인의 긍정적 자아상에도 중요한 역할.
자원봉사자 역할정체성~자원봉사의 지속성과 관계 (Finkelstein, et al., 2005)

-노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정체성 --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및 통제력 강화 가능(김미령, 2014) -> 삶의 만족도에 중요

결국 세 가지 관점은 통합적 자원봉사과정(volunteering process)

3. 한국의 노인자원봉사

1) 고령사회의 한국 노인자원봉사 실태-1

-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에 관한 조사 : 노인실태조사에서 3년에 한번씩 --> 한국의 노인자원봉사 현황 파악에 도움.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노인자원봉사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 2008년~ 2017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평균 자원봉사참여율 14.42% (서구의 다른 나라의 노인자원봉사참여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편)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

연령 / 년도	2008	2011	2014	2017	평균
전체	10.2	13.1	19	15.4	14.42

자료 : 노인실태조사 2008, 2011, 2014, 2017에서 재구성

1) 고령사회의 한국 노인자원봉사 실태-2

<노인자원봉사 참여 형태>

한국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를 보면 단순노력봉사가 3/4을 차지할 정도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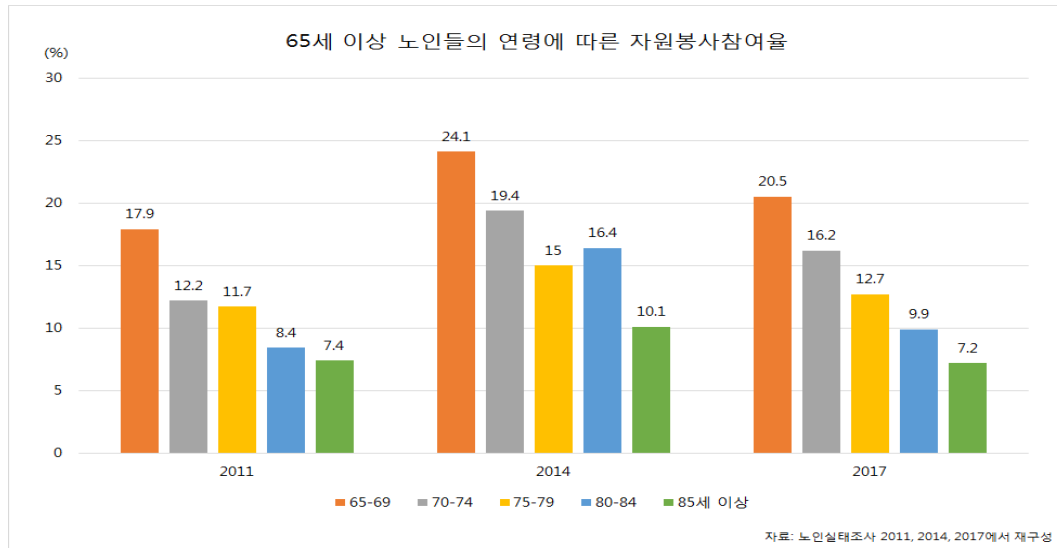
노인(65세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 (%)

특성	참여 형태	2014				2017			
		단순 노력 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기타	단순 노력 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기타
연령별	전체	77.0	14.9	8.0	0.1	77.9	12.3	8.7	1.0
	65~69세	80.2	12.4	7.2	0.2	80.6	10.6	8.9	0.0
	70~74세	74.9	17.9	7.0	0.2	80.0	13.6	4.8	1.6
	75~79세	75.6	11.5	12.9	0.0	71.2	16.9	8.5	3.4
	80세 이상	66.25	28.4	5.35	0.0	66.55	5.9	27.55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7) 노인실태조사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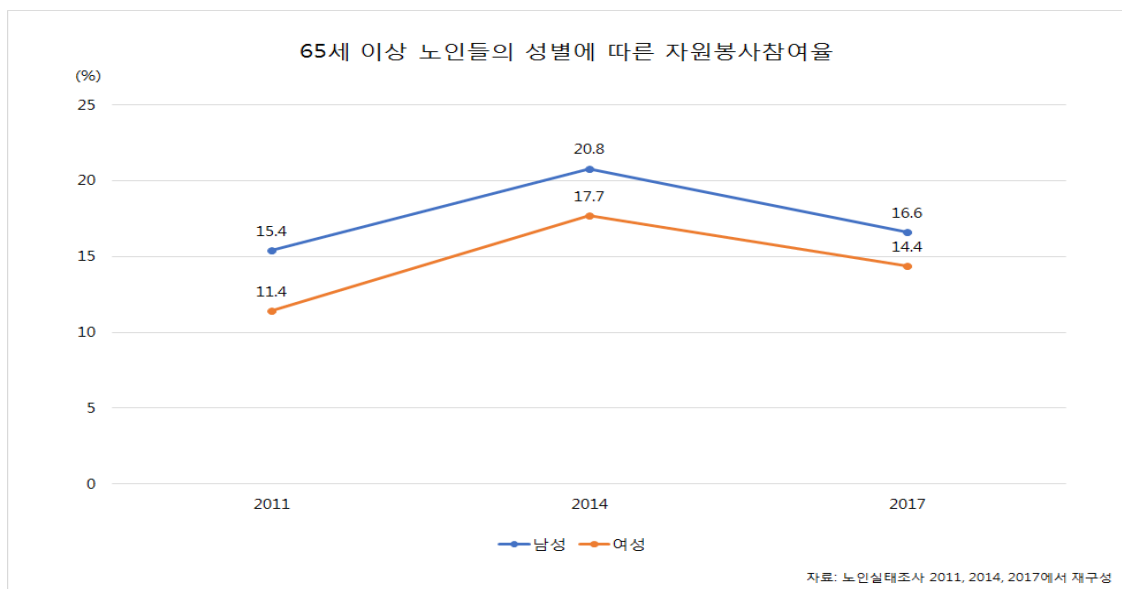
2) 인적자본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1

(1)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



2) 인적자본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2

(2)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



2) 인적자본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3

(3) 교육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교육수준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대 이상의 경우 2011년 30.4%, 2014년 37.6%, 2017년 31.4%로 모두 30%가 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아 자원봉사에서 인적자본인 교육의 역할이 큼을 알 수 있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적인 능력들을 갖추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의 참여도 활발할 가능성이 높음.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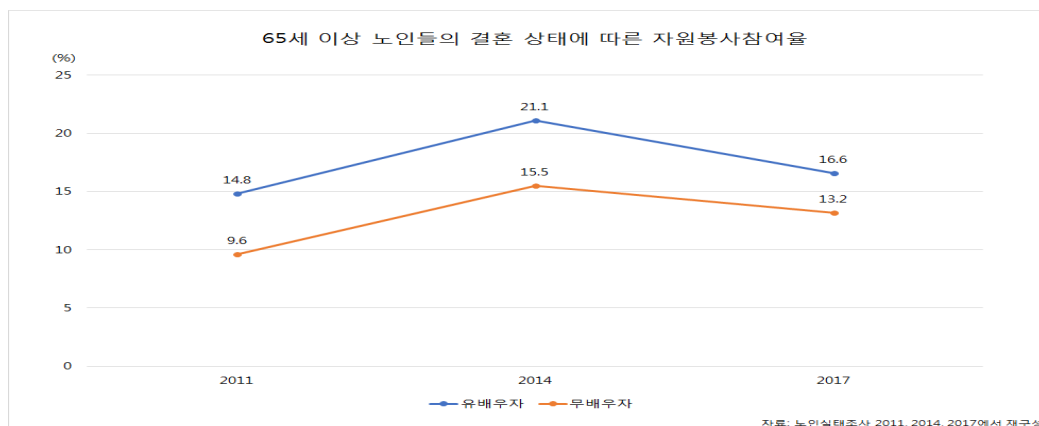
년도 / 교육수준	2011		2014		2017		각 연도별 계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무학	9.4	90.6	14.5	85.5	9.6	90.4	100
초등학교	11.3	88.7	16.7	83.3	12.2	87.9	100
중.고등학교	20.5	79.5	27.1	72.9	21.2	78.8	100
전문대 이상	30.4	69.7	37.6	62.4	31.4	68.5	100

자료 : 노인실태조사 2011, 2014, 2017에서 재구성: 참여는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비율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합한 것이며 비참여는 한 번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다.

2) 인적자본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4

(4) 결혼 상태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

결혼 상태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을 보면 유배우자일 경우는 무배우자일 경우보다 자원봉사율이 높음. 배우자도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같이 자원봉사를 하던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격려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3)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실태-1

-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는 한국의 노인자원봉사의 핵심
- 2011년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Henriken et al(2019)가 제시한 세 측면에서 파악
 - 첫 번째 : 인구공급의 측면 - 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5 초고령사회 진입
 - 두 번째 : 사회적 측면 :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 세 번째 : 법적, 제도적 측면

(1) 인구학적 측면

- 인구의 고령화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공적 은퇴연령 : 2016년 고용상연령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은퇴연령이 만 56세.

3)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실태-2

(2) 사회적 환경의 변화 : 국내적, 해외적

① 국내적 환경

-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전문노인 자원봉사 지원사업추진(이금룡, 2016).
- 2011년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경로당 중심을 클럽 중심으로.
- 노인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서서히 증가 시작;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된 2011년 이후-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② 국제적 환경

- UN :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로 정함 (UN, 2001, OECD, 2015, p.191 재인용).
- 유럽연합 : 2011년을 유럽자원봉사의 해(European Year of Volunteering)로 선포(OECD, 2015).

3)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실태-3

② 국제적 환경

- 미국 : 2005년부터 노년학계에서도 활발하게 광의의 자원봉사 개념인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에 관심 갖기 시작
- 미국의 대표적 노년학회의 하나인 ASA(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 2005년 학회의 분과영역에 시민참여의 새로운 트랙 만들

GSA(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는 미국노인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in an Older America)라 불리는 5개년 계획을 세워, 네 개 도시서 시민참여에 대한 포럼 개최-2005년 백악관의 노화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 미국의 주요 노년학회에서 2005년을 기해 일제히 광의의 자원봉사 개념인 시민참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 미국학계 및 한국학계의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국가가 노인자원봉사 정책에 관심을 갖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 됨

3)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실태-4

(3) 법과 제도적 측면

-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 요구에 걸맞게 노인의 사회참여가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한국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 : 자원봉사활동지원법,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될 것임.
-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정〉

노인 뿐 아니라 전체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임.

- 미국은 단연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가 6,217억 달러로 제일 많고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OECD, 2015)
- 한국이 가장 적은 78억 달러
- 스웨덴은 자원봉사가 주로 여가활동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남
- GDP에서 차지하는 자원봉사의 가치 비율: 미국은 GDP의 3% 이상, 스웨덴 2.6%, 일본이 0.7%, 한국 0.5%로 가장 낮음-->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가 절박.

OECD 국가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정

국가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정	
	금액(2013년 가치 미화 10억 달러, 구매력 평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3년 가치 미화 10억 달러, 구매력 평가)
일본	33.2	0.7
한국	7.8	0.5
스웨덴	11.3	2.6
미국	621.7	3.7

출처: OECD(2015).

4. 해외의 자원봉사의 현황

- 미국 :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가 진행,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이타주의에서 시작한 자원봉사,
- 일본 :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 자연재해 특히 지진 등의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 스웨덴 : 유럽에서 긴 역사를 통하여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진행. 이타주의 보다는 자신의 유익인 이기적 목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히 진행. 서구 국가들의 자원봉사를 한국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
- 자원봉사만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조사는 없고 대부분 광범위한 다른 주제를 조사하는데 포함, 사회조사나 생활시간조사 등에서 부차적으로 가져온 것들임.
- 표준화된 개념 정의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으로 OECD국가들의 자원봉사의 명확한 기준이나 수준을 알기가 쉽지 않음.
- 일반적 질문은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기관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했습니까?(OECD, 2015, p.197)임.
- * OECD국가들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 추이 정도를 살피는 것은 가능함

1) 미국-1

자원봉사는 경제 상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한해 최저임금 미만
어느 정도 보수 지급 (한국의 노인일자리 같은 개념)

--> 광의의 자원봉사의 개념

: 이러한 이유와 기독교정신인 이타주의가 결합하여 자원봉사가 가장 활발
한 것일 수도 있음

1) 미국-2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미국의 시니어봉사단(Senior Corps), 미국은퇴자 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 등에서 만55세부터 가능

-노년기의 노인자원봉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 자원봉사는 젊은
시절부터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노년기에도 중년기 때 자원봉사를 하던 사
람이 계속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Kahn & Juster, 2002)

미국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시계열 비교(2011년~2015년) (%)

연령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55 ~ 64세	28.1	27.6	26.0	25.9	25.1
65세 이상	24.0	24.4	24.1	23.6	23.5

출처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6)에서 재구성

1) 미국-3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유형>

-자원봉사참여율: 2015년에 24.9%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종교기관을 통한 것이 주류, 다음이 사회나 지역사회서비스.

미국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유형 (%)

활동유형 / 연령	문화 정치 전문 국제	교육 청소년 서비스	환경 동물 서비스	병원 건강	공공 안전	종교	사회, 지역 사회 서비스	운동 취미 문화 예술	기타	무응답	계
55 ~ 64세	5.3	16.2	3.4	6.3	0.9	39.5	16.2	4.0	5.7	2.5	100
65세 이상	6.6	9.3	2.4	7.3	0.9	42.7	17.3	4.5	6.8	2.3	100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6)에서 재구성

1) 미국-4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유형>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았음
- .고학력자의 활동은 교육관련이 두드러짐.
-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활동이 차지하는 훨씬 높음.
- .대졸 이상은 전문/관리지원/교육 등의 봉사를 많이 하는 반면 대졸 이하는 일반단순노동 등의 활동 많이 함.

미국의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유형 (%)

활동유형 / 학력	문화 정치 전문 국제	교육 청소년 서비스	환경 동물 서비스	병원 건강	공공 안전	종교	사회, 지역사회 서비스	운동 취미 문화 예술	기타	무응답	계
고졸 미만	2.3	19.9	1.0	2.7	1.1	52.7	12.1	1.6	3.7	2.9	100
고졸 이상	4.5	21.7	2.1	5.1	2.2	40.3	13.8	3.4	4.8	2.2	100
전문대학 이상	5.1	23.3	2.4	5.9	1.2	36.3	15.3	3.1	4.9	2.4	100
대졸 이상	5.3	26.3	3.2	7.2	0.6	29.9	14.8	4.3	5.6	2.9	100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6)에서 재구성

2) 일본-1

일본 :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 현상으로 20년 밖에 되지 않음

-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구조 활동-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
- “평생현역사회구현”이라는 정책-2013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활동 지속하도록 하는 정책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도 근간(류재광, 2019)
- 노인자원봉사자들 중 85%인 대다수는 무보수, 15%정도가 경비를 지원 받음 (교통비나 실비(4.7%), 교통비나 실비보다 조금 적은 액수(5.5%), 교통비나 실비보다 조금 많은 액수(4.6%)) (류재광, 2019).

(* 일본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는 사회생활기본조사로 가장 최근 발간된 자료가 2017년이며 내용은 2016년 10월에 조사한 자료임)

2) 일본-2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고령자가 많아 50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은 매년 26.5% 정도(74세까지만 29%)

일본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

연령 / 년도	2006	2011	2016
50-54	30	30.2	29.2
55-59	27	27.8	28.8
60-64	29	27	28.8
65-69	31	28.8	29.8
70-74	30	28	30
75세 이상	19	17.5	19.5

출처: Statistics Bureau Japan 2006, 2011, 2016에서 재구성

2) 일본-3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참여율>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참여율 (%)

구분 / 년도	2006	2011	2016
지역 개발 활동	12.0	10.9	11.3
아동을 위한 활동	5.6	8.2	8.4
안전 증진 활동	5.2	4.9	5
환경 보존 활동	6.5	4.8	4.1
재난 관련 활동	1.7	4.3	2
노인을 위한 활동	4.5	4.0	4.1
운동, 문화, 예술 서비스	4.4	3.9	4
건강, 의료관련 활동	2.7	2.6	2.6
장애인을 위한 활동	2.0	1.6	1.7
국제협력 활동	1.8	1.5	1.4
기타	1.9	1.8	2.5

출처: Statistics Bureau Japan 2006, 2011, 2016에서 재구성

3) 스웨덴-1

- 스웨덴의 복지국가형 자원봉사: 문화 복지에 더 초점.
- 스웨덴의 자원봉사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는 달리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근간.
- 스웨덴의 자원봉사정책: 자원봉사자 개인보다는 자원봉사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더 초점(정진경, 2013)
- 자원봉사의 주된 활동 영역이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역사, 문화적 차이 영향 때문.

3) 스웨덴-2

〈스웨덴의 자원봉사의 특징〉

.스웨덴의 자원봉사: 이타주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원봉사.

첫 번째, 자원봉사는 레저활동으로 중요

- 자원봉사 조직의 반 정도가 스포츠, 문화, 취미나 레크레이션.
- 전체 자원봉사 중 1/3이 레저단체들에서 행해짐.
- 자원봉사는 레저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즐김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는 전통적으로 시민과 국가의 중간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

- 많은 자원봉사기관은 이익단체(interest organizations) 역할 수행

3) 스웨덴-3

〈자원봉사참여비율〉

스웨덴은 자원봉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1992년~2014년까지 10년 넘게 전체 인구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50% 정도.

스웨덴의 한 영역의 자원봉사참여비율

연도	1992	1998	2005	2009	2014
비율	48	50	48	46	54

출처: Henriksen et al.(2019)에서 재구성
지난해 적어도 한 영역의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임

3) 스웨덴-4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은 연령에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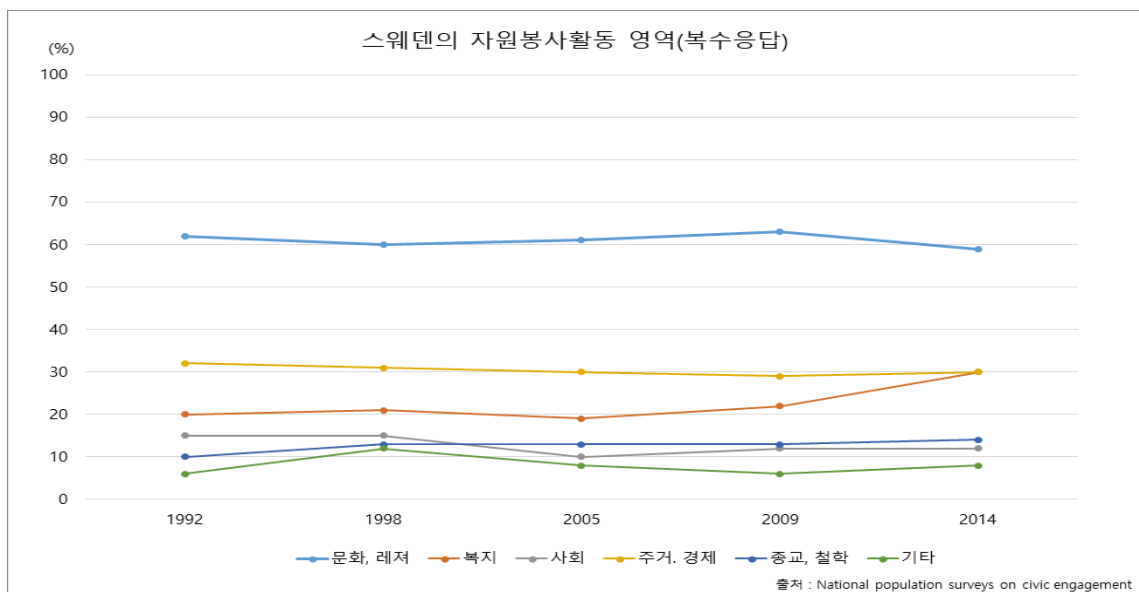
스웨덴의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참여율 (1998, 2005, 2009) (%)

남성				여성			
연령/년도	1998	2005	2009	연령/년도	1998	2005	2009
60-64	54	56	54	60-64	38	45	38
65-74	45	56	51	65-74	45	37	44
75-84	-	32	38	75-84	-	24	32

출처: GHK 2010에서 재구성

3) 스웨덴-5

<자원봉사활동 영역>



5.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현황

1)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1

(1) 설문대상

2019년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클럽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전국의 16개 시·도연합회와 245개 시·군·구지회 전달체계를 통해

2019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한 달 간 설문조사 실시.

설문대상자는 303명.

1)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명, %)

특성	범주/속성	빈도	비율	Mean±SD
연령	60대	60	19.8	74.38±5.41
	70대	186	61.4	
	80대 이상	57	18.8	
성별	남자	153	50.5	
	여자	150	49.5	
교육	무학	10	3.3	
	초등학교 졸업	52	17.2	
	중학교 졸업	92	30.4	
	고등학교 졸업	92	30.4	
	대학교 졸업 이상	57	18.8	
종교	불교	89	29.4	
	개신교	54	17.8	
	천주교	49	16.2	
	종교 없음	94	31.0	
	기타	17	5.6	
직장생활	예	24	7.9	
	아니요	279	92.1	

1)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3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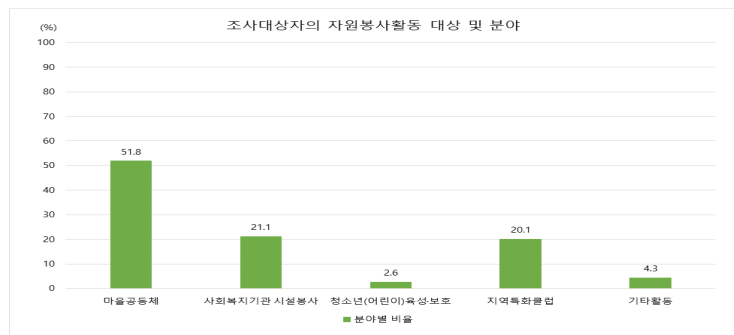
특성	속성	빈도	비율
자원봉사활동 경력	1년 미만	12	4.0
	1-2년 미만	43	14.2
	2-3년 미만	61	20.1
	3-4년 미만	44	14.5
	4-5년 미만	45	14.9
	5년 이상	98	32.3
지난 1년간 일주일 평균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2시간 미만	43	14.2
	2-4시간 미만	120	39.6
	4-6시간 미만	50	16.5
	6-8시간 미만	15	5.0
	8시간 이상	75	24.8
자원봉사에 참여 전/후에 건강의 변화	건강이 더 좋아졌다	244	80.5
	건강이 더 악화됐다	6	2.0
	변화가 없다	53	17.5

1)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4

<자원봉사활동 대상 및 분야>

자원봉사활동 분야:

- 마을공동체활동 (환경정화, 안전방법, 꽃밭조성 등), .
- 사회복지기관·시설봉사활동 (말벗상담, 생활편의지원, 행정보조 등)
- 청소년(어린이)육성·보호활동 (예절교육 및 선도활동, 유해시설 점검, 1·3세대 봉사 등) .지역특화클럽활동 (문해교육, 평생교육, 집수리, 칼같이, 문화예술공연)



1)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5

<자원봉사활동 동기>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동기 (% , 총점 5점)

동기	비율					평균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성동기	1.58	5.54	19.60	52.81	20.46	3.85
가치동기	2.18	2.64	15.25	52.61	27.33	4.00
이해동기	1.58	1.98	13.60	56.04	26.80	4.04
강화동기	1.65	1.52	11.75	54.92	30.16	4.10
보호동기	2.57	4.82	22.90	47.52	22.18	3.82
전체 자원봉사동기						3.96

2) 노인자원봉사 효과-1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 (명, %)

특성	범주	빈도	비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	예	159	52.5
	아니요	144	47.5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 여부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새로 배운 기술	꽃가꾸기	30	18.9
	상담	31	19.5
	행정업무	12	7.6
	한글 읽고 쓰기	8	5.0
	집수리	2	1.3
	칼갈이	2	1.3
	우산수리	0	0.0
	악기연주	34	21.4
	유아돌봄 기술	2	1.3
	기타	38	23.9

2) 노인자원봉사 효과-2

<자원봉사의 보상(유익)>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보상(유익) (명, %)

특성	범주	빈도	비율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 (복수응답)	①생활이 체계적으로 된다	66	21.8
	②소일거리가 있다	77	25.4
	③친구를 많이 사귄다	125	41.3
	④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다	96	31.7
	⑤건강에 도움이 된다	168	55.5
	⑥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157	51.8
	⑦사는 보람을 느낀다	143	47.2
	⑧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낀다	129	42.6

2) 노인자원봉사 효과-3

자원봉사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보상

(명, %)

특성	범주	빈도	비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보상 (복수응답)	소정의 비용	169	55.8
	건강보험 할인혜택	56	18.5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16	5.3
	문화상품권	52	17.2
	건강검진 할인혜택	88	29.0
	간병인 혜택	49	16.2
	문화시설 할인혜택	88	29.0
	필요없다	19	6.3
	기타	7	2.3

2) 노인자원봉사 효과-4

자원봉사자의 보상과 지속의향 (명, %)

특성	범주	빈도	비율	Mean±SD
자원봉사활동비 지급당위성	예	241	79.5	
	아니요	62	20.5	
보상이없어도자원봉사를 계속할지 여부	예	259	85.5	
	아니요	44	14.5	
보상이 있다면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될지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18	5.9	3.94±1.14
	그렇지 않다	18	5.9	
	보통	42	13.9	
	그렇다	110	36.3	
	매우 그렇다	115	38.0	
자원봉사를 계속 하실 의향	예	298	98.4	
	아니요	5	1.7	
자원봉사를 몇 살까지 계속하실 계획	70대	32	10.6	85.44±6.97
	80대	169	55.8	
	90대	72	23.8	
	100대 이상	30	9.9	

2) 노인자원봉사 효과-5

<노인자원봉사 효과>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효과를 나타내는 사회통합감, 자원봉사만족도, 역할정체성에서 보통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효과 (% , 총점 5점)

효과	비율					평균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통합감	1.87	3.54	19.81	47.94	26.86	3.94
자원봉사만족도	0.00	1.23	14.07	51.40	33.33	4.17
역할정체성	2.58	12.02	16.50	48.10	20.80	3.73

문항 중 부정문은 역채점 실시함

2) 노인자원봉사 효과-6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특성과 자원봉사동기의 효과>

자원봉사특성과 자원봉사동기가 사회통합감, 자원봉사만족도, 역할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사회 통합감	자원봉사 만족도	역할정체성
통제/독립변인	b	b	b
성별	-0.174**	-0.017	-0.185***
연령	0.004	0.004	-0.005
학교 교육	0.045	0.023	0.076**
건강 상태	0.197***	0.122***	0.069*
경제적 형편	0.032	0.057	0.031
자원봉사활동 경력	0.029	0.004	0.000
1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0.009	0.033	-0.021

*p<.05; **p<.01; ***p<.001; one tail tes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성별: 남자=(1), 여자=(0);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 예=(1), 아니오=(0)

(계속)

2) 노인자원봉사 효과-7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특성과 자원봉사동기의 효과>

자원봉사특성과 자원봉사동기가 사회통합감, 자원봉사만족도, 역할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사회 통합감	자원봉사 만족도	역할정체성
통제/독립변인	b	b	b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	0.107*	0.124*	0.089*
사회성동기	0.041	0.076	-0.087
가치동기	0.322***	0.044	0.102
이해동기	-0.081	-0.062	0.006
강화동기	-0.005	0.293**	0.288**
보호동기	0.059	0.160**	0.109
F	13.27***	14.95***	17.17***
R ²	0.3738	0.4021	0.4358

*p<.05; **p<.01; ***p<.001; one tail tes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성별: 남자=(1), 여자=(0);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 예=(1), 아니오=(0)

6.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의 필요성

- 20-30년 늘어난 기대수명 기간 중 사회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필요.
- 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 활동은 노인들이 성공적 노년기를 보내는 데에도 중요.
-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통합감을 느끼며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은 행복이나 복지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건강한 노인으로 비용부담 감소 의미.
- 노인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상당 부분 차지.
- OECD 국가 중 본 연구에서 비교한 세 나라 중 한국은 가장 빠른 고령화에 비하여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GDP대비 자원봉사의 예산 비율 등은 하위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필요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미시, 중간, 거시체계의 입장에서 접근 가능

2) 미시적 접근 : 개인

- 개인이 자본을 갖추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

<홍보 : 권유>

- 가장 쉽고 중요한 활성화 방안

아들러와 고딘(2005):

	권유(X)	권유(O)
자원봉사(O)	17%	84%
자원봉사(X)	83%	16%

3) 중간체계 접근 :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역할-1

- 자원봉사 중재자로서의 기관의 역할
조직은 사회자본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훨씬 매력적 :
결속력, 다양한 종류의 개인관계를 보상, 사회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많은 자원봉사 기회를 줌.
-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 재원마련, 자원봉사자 충원, 자원봉사자
및 클럽리더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홍보, 자원봉사 권유 등.

3) 중간체계 접근 :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역할-2

-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자원봉사
- 인적자원 활용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환 필요: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교육수준을
고려한 전문자원봉사로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미국 : 대졸 이상은 전문, 관리지원 혹은 교육 등의 전문가 자원봉사를 함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6).
-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단순노동은 지양, 50%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복지 영역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영역을
활성화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등 교육)

3) 중간체계 접근 :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역할-3

- 인정 보상의 활성화

- 약 3/4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은 보상이 있다면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함

(1)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 제정

- 봄이나 이른 가을 등 따뜻한 계절 야외에서 가능하도록(예: 평생교육축제)

(2) 할인혜택

- 스마트 데이터, 인터넷 할인혜택

(3) 교육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 예) 수납 전문가 (3시간씩 5회 교육, 수납 2급 자격증) - 특별한 대면 접촉없이 가능

4) 거시적 접근-1

(1) 사회문화적 :

-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 노인자원봉사의 경제적 효과 분석:

초기의 지원 단계에는 예산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경비보다 경제적 효과가 분기점을 넘은 상황

4) 거시적 접근-2

(2) 법적, 제도적 정비

미국 대통령 케네디 : 1961년 평화봉사단(Peace Corps) 창설,
존슨: 1963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선포를 통해
공적 자원봉사추진기구인 설립,
닉슨: 1969년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
클린턴: 1993년 최초로 CNCS(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결성,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자원봉사 정부전달체계 확립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으로 자원봉사 발전

- 한국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노인의 15% 정도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인 만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은퇴 후 노인들의 역할 필요
--> 고령사회의 새로운 노인역할상 정립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 필요.

4) 거시적 접근-3

(3) 자원봉사 전담 국가기관 필요

미국의 CNCS와 같이 국가의 자원봉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 필요.

-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국가자원봉사진흥원> 등의 조직을 통해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성화 필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자원봉사전통이 깊음: 한국의 자원봉사활성화
위해 개인의 인식, 사회문화적 환경, 국가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합해 시너지효과
일어날 수 있을 것

- 한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장 낮음. 고령화 속도, OECD 국가에서
은퇴연령이 가장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필요, 국가의
재정지원 증가시킬 필요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활성화 방안-1

➤ 노인자원봉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위축,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위축, 향후 노인자원봉사의
아날로그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아날로그세대인 노인들에게 디지털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 교육,
인식변화 등을 통해 배우게 해야 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함.
- 현재의 노인, 노년층에의 진입하는 노인들로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이원화가 필요.
-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투자 필요.

코로나 19 이후의 활성화 방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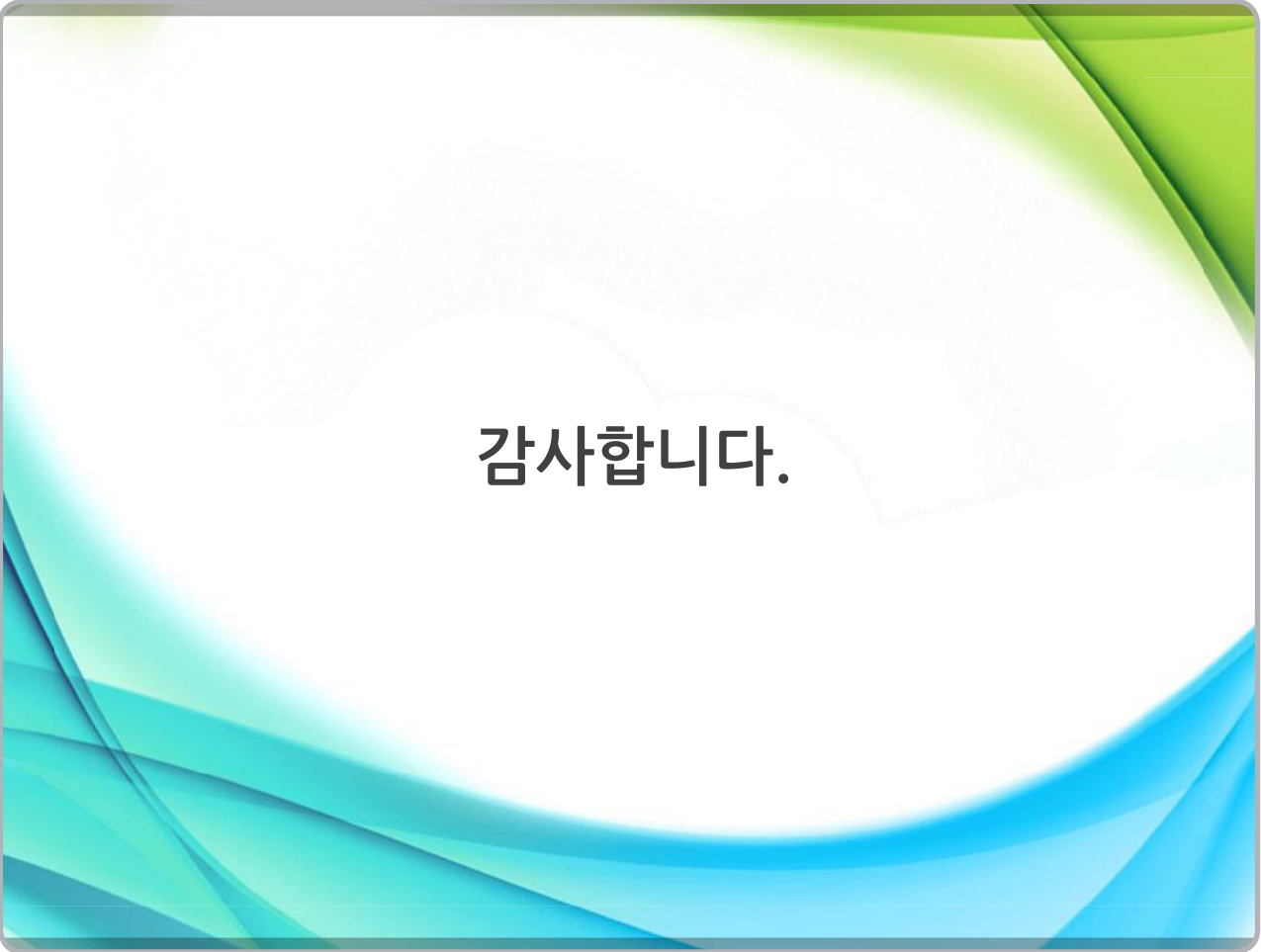
- 기관에서 소양교육: 백신이 개발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코로나로 부터 해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컴퓨터 활용능력, 스마트폰 활용능력
· 특별한 대면 접촉 없이도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교육-줌zoom 활용, 회원들이 식사하며 줌 zoom 을 통한 대화
- 자원봉사자 충원 시 스마트폰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교육가능자 등도 차
별화 해 충원 필요(예: 미국 제2외국어 능력)
- 인센티브: 노트북 등, 컴퓨터 배울 수 있도록 지원, 대학과 자매결연 하여
컴퓨터 룸 등 활용, 컴퓨터전공학생들의 재능기부-세대통합도 가능

참고문헌

- 류재광 (2019). “일본 노인자원봉사현황과 관련 정책 및 시사점” 고령사회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대구대학교보건복지부 (2015). OECD Health Data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08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1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7
이금룡, 정진경, 이민홍 (201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대한노인회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16). 인구통계자료집
이금룡, 정진경, 이민홍 (201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대한노인회
정진경 (2013). 복지국가 맥락에서 스웨덴, 미국, 한국의 자원봉사정책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137-160.
통계청 (2015).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00~2018)
행안부 (20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2018-2022)

참고문헌

- Adler, Richard P., & Goggin, Judy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July, 236-253.
Chen, L-Mei (2015). 일본의 고령자 자원봉사: 유급 자원봉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10월호, 13-25.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Copeland, J., Stukas, A., Haugen, J., & Miene, P. (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516-1530.
Lancee, Bram & Radl, Jonas (2014). Volunteering over the life course, *Social Forces*, 93(2), 833-862.
Henriksen, L.S., Stromsnes K., & Svedberg, L.(2019). (Eds.), *Civic Engagement in Scandinavia: Volunteering, Informal Help and Giving in Denmark, Norway and Sweden*, Nature Switzerland: Springer.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Statistics Bureau Japan (2006).
Statistics Bureau Japan (2011).
Statistics Bureau Japan (2016).
U.N. (2018). *Volunteers: The Scope and Scale of Global Volunteering*.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6).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2015*.



감사합니다.

토 론 문

박 양 숙 소장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장(전)

□ 노인과 자원봉사

코로나 이후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의미있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의 공황이 우리 삶의 모습을 급변시켰다. 자원봉사현장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감염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더 많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노인 세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폭넓은 의미에서 여가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0). 노인에게 여가는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유지와 실현을 위한 행복의 요소이다. 특히, 여가활동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생활만족과 사회구성원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이은상·조건상, 2015; 이은희·박양숙, 2017, 재인용). 노년기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은 자발적인 선택으로서 노인 당사자에게 자유와 평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장인협·최성재, 2007).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노년기 진입과 고령사회진입은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강조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참여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으로 노인일자리아업 및 사회참여지원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공공형에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공공형(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은 활동의 성격을 봉사(사회공헌)로 분류하여 여타의 노인일자리아업과는 구별되어 있다. 하지만, 공익활동과 재능활동은 활동비를 지급하여, 자원봉사 실천현장에서의 운영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

발제자의 원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를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한노인회의 노인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재능나눔활동을 협의의 자원봉사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며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자원봉사활동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명확하게 경계를 가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본 토론자가 속해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55만2,154명의 인구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10)를 가진 도시이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87,059(2020.5월 현재)명이다. 이는 인구수 대비 34%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양시 2019년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17.7%로 전국 평균 16.1%보다 높은 비율로 자원봉사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인원 중 60세 이상의 참여자 수는 15,585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안양시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2.6%인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제자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65세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이 2008년(10.2%), 2011년(13.1%), 2014년(19%), 2017년(15.4%), 평균 14.42% 라는 자료를 보면, 안양시의 노인자원봉사참여율은 극히 저조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실태조사가 재능나눔활동을 자원봉사에 포함한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전략

위드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웃의 행복과 불행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회복될 수 있다. 21세기의 자원봉사활동,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함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마을 안에서 아이와 노인, 노인과 청년, 노인과 중장년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즉,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누구를 돕고, 수혜자와 제공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를 새로운 노인자원봉사 트렌드로 제시하였다(안양시자원봉사센터, 2020).

이는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을경로당을 자연스럽게 찾고, 경로당의 어른들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네트워크이며, 공동체의 상생이며, 경로당 어르신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는 것이다. 마을의 청년들과 공유부엌에서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둘째, 자원봉사의 지속성이다. 단순노동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은 쉽게 지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단순형의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면 자원봉사활동이 수월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발제원고에서 보여주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형태를 보면 단순노력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77.0%에 달한다. 자원봉사경험과 경력이 많아질수록 숙련되고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하여야 자원봉사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지금의 고령사회는 노인들의 학력수준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며, 경제수준도 높아지고 있다(오세숙 외, 2016). 학력과 경제적 상황, 건강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5060의 중장년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중에 있다. 중장년층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후 노년기에도 안정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센터에는 노인상담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60시간이상의 전문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중장년기에 경험한 전문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도울 수 있다(안양시자원봉사센터, 2020).

셋째, 미래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삶의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왔다. 그 중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폐쇄는 노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코로나위기 속에서도 가장 위험한 세대가 노인세대인 것이다. 코로나는 디지털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노인들에겐 이 또한 위기인 것이다. 코로

나가 바꾸어 놓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코로나 종식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회화교육을 자원봉사 유관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는 학습프로그램은 많은 학습관련기관 등에서 실시했고, 노인들은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익히기만 하고, 활용할 수 없는 노인들은 매월 똑같은 과정의 컴퓨터수업을 등록하기도 한다.

이제 미래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생활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한다.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방법을 익히고, 장애인이나 또 다른 노인에게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게 돕거나, 온라인수업으로 힘들어 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돕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는 것이다.

네번째,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에게 밀반찬을 배달하는 노인자원봉사자는 코로나로 대상노인을 대면할 수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용기를 사용하여, 반찬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속상해 한다. 내가 돌보는 노인이 반찬은 잘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노인봉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이다. 코로나이전에는 봉사자는 반찬을 배달하면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고, 반찬에 대한 선호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는 이를 앗아갔다. 노인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 중에는 책임감, 만족감 등의 동기유발 요인이 있다. 따라서,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온라인,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여야 한다. 밀반찬 봉사활동자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수혜자의 안부를 묻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자원봉사자 활동비지급의 현실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및 사회참여지원사업의 한 유형인 재능나눔활동은 봉사활동이다.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활동내용은 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학습지도, 문화예술, 기타 재능나눔활동이 있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지원사업이지만, 자원봉사현장에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자원봉사활동 운영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자원봉사활동 4시간을 기준으로 교통비3,000원이내, 급식비 7,000원이내로 일만원의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20, 안양시자원봉사센터, 2020).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노인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경로당)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와 노인자원봉사활동처와의 적극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센터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실비보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대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겠다.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이 자원봉사현장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주체가 되어 사회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이은희·박양숙, 2017). 또한, 오랜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으로 미래세대에 전수하게 된다는 문화창조와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지원사업과의 봉사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안양시자원봉사센터(2020), 안양시 동V터전모델 구축 연구보고서-(2020),
- 안양형 돌봄 전문자원봉사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_(2020),
- 자원봉사법령집 안전행정부(2020), 자원봉사법령집
- 오세숙 외(2016), 여가활동유형별 노인여가정책 연구동향, 여가학연구, 14-1, pp.63-82
- 이은희·박양숙(2017), 새로 쓴 노인복지론, 학지사

토 론 문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기획장교(전)

국방정신교육원 정신전력 담당 교수(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전)

대한민국 성우회 행정실장(전)

먼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체로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정숙 회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관련 상황이 갈수록 더 위중한 상황이기에 오늘의 행사가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귀한 시간을 내어 주제 발표를 해주신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복지학과 교수님이시면서 고령사회연구소장을 겸하고 계신 김미령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당황했지만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와 변화가 노인 자원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김미령 교수님께서 먼저 자원봉사 개념 및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비 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적절한 주제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이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자원봉사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자원봉사는 노인복지를 이루는 출발점이고 가야 할 도착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후를 무료하게 보내는 것은 엄청난 인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에서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자원봉사가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중앙차원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등의 부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건복지부가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행정안전부 법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 10510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 2조 활동에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 2항에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가 2011년에 중앙회 설치되고 각 시도연합회에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가 발족되어 지금까지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여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 중 하나입니다. 노인들에게 평생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활동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를 도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 당사자 주도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 자신과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적 이익을 살펴보면 퇴직으로 상실된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보충, 사회적 가치 회복 유지, 긍정적 자아상 유지, 자기 효능감의 확인, 소외감 극복, 생활 만족도 상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적 이익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 위상 상승, 지역사회 발전, 고령화 사회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 등 다양한 사회적 이익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의 긍정적인 목표는 노인봉사자의 양적성장과 질적 향상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강화 및 확산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자원봉사 영역 내에서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서 기존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모집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잠재적 봉사자들을 유인하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기술과 전문인력을 통해 새롭게 진입하는 민간 봉사단체 및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의 양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및 참여영역의 확대 방안으로 지역 기반 소규모 은퇴자 및 고령자 봉사단체 인프라 구축, 전문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시민 서비스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지향점을 바탕으로 민간기관의 육성 및 지원, 공기업, 사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시민서비스활동과의 연계라는 정책 방안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단순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붐 세대와 예비노인까지를 포괄하고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은퇴자 및 고령자 봉사단체까지도 아우르는 참여대상의 확대, 봉사활동이 일반 봉사 및 준 전문적인 봉사활동에서 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까지 확대되는 활동영역의 확대,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학습과 여가활동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활동연계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에서도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노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 협력자, 조력자를 구하는 기회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노인자원봉사를 통해 공급자나 수혜자가 진정한 봉사는, 봉사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피드백으로 연결시키는 봉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역할을 상실하고 고독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봉사활동 참여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로 흘리는 땀방울에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상대의 행복감보다 오히려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성취감 음미와 자긍심 회복은 연륜이 깊어가면서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교감으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젊은이가 어른사회를 대하는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

니다. 노인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자 1969년에 제정된 노인 강령의 내용을 저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보면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 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하나, 우리는 경로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구현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노인자원봉사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진정한 봉사는 봉사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노인자원봉사 분야의 대가를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게 된 것이 앞으로 노인자원봉사를 이끌어 가는 핵심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소개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16개 시·도연합회, 세종특별시에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가 개소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경로당 및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노인자원봉사클럽을 조직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클럽은 20명(코치 1~2명) 규모로 자기 주도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주제를 계획하고 실행되고 있으며, 클럽 조직은 코치와 일반회원 그리고 노인자원봉사관리자(지회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일반 봉사 영역의 테두리 안에 범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가면서 노인자원봉사본부나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늘 고민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자원봉사, 일반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안주하지 말고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전문자원봉사영역의 테두리 안에서만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노인으로서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노인 강령의 문구처럼 노인들의 장점을 살려 전문자원봉사로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심에 오늘 주제발표를 하여 주신 김미령 교수님과 또 토론자로 발표를 하여 주신 황진수 교수님, 그리고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기준 과장님께서 늘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못지않게 발전, 정착하였다는 사실을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본부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지역별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활동(독거노인 반찬서비스, 안전·방법, 꽃길 조성), 사회복지기관·시설봉사(말벗 및 상담, 생활편의지원, 행정보조), 청소년 육성·보호(1·3세대 문화교실 운영, 예절교육 및 선도활동), 행복나눔봉사단(문해교육, 문화예술공연, 집수리) 등 매년 약 1,700클럽의 약 40,000명의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적
지원 클럽 수	732개	1,273개	1,297개	1,729개	1,831개	1,728개	1,727개	1,777개	1,786개	13,880개
자원봉사자수	15,150명	21,885명	25,453명	31,977명	32,547명	29,981명	28,528명	31,625명	31,781명	248,927명

※ 지원클럽 : 클럽활동운영비 지원 클럽 · 봉사단 수, 자원봉사자 : 실 활동 인원 수

초고령사회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집단이 모두 노인이 되어 노인이 노인을 돕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대한노인회가 전국에 노인자원봉사클럽 조직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은 크게 4가지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마을공동체활동 :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 환경보호, 캠페인 등
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봉사 : 교육, 생활편의지원, 상담, 문화공연, 사무지원 등
3.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 청소년 선도, 안전 등
4. 기타 : 보육시설매칭, 문해 교육, SNS 활용 활동, 홍보취재, 통번역 등

2. 코로나 대응 노인자원봉사클럽의 활동 사례

올해 코로나 19의 상황은 21세기 세균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제 4차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 및 복지관의 유례 없는 폐쇄 조치는 노인자원봉사활동 중단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전반에 위기감을 불러왔고, 우리가 경험한 바 없는 심리적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도 힘든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노인자원봉사 참여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간헐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 안전 수칙 준수

- 별도 코로나 대응 매뉴얼 제작 하여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보급
- 전 노인자원봉사클럽 비접촉 체온계 구입하여 활동 전 발열 체크



2) 비대면 온라인 교육 전환(노인자원봉사 코치 양성교육, 지역센터장 화상회의)

-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장 매주 화상회의(라이브톡) 진행
- 노인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진행

3) 천마스크, 수제 비누, 손수세미 등 코로나 관련 방역 용품 제작

- 일회용 마스크 부족 등으로 천 마스크 제작하여 소외계층 전달
- 취약한 독거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위생 문제 해결

4) 문화예술공연팀 실내 요양원에서 야외 공원 등 버스킹 공연 활동 전환

- 코로나 확산으로 실내 활동 지양 / 야외 버스킹 공연 활동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 자원봉사 활동



5)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농어촌 일손 돕기 활동 전환

- 코로나 확산으로 농촌인력수급 부족해소 자원봉사 활동
- 지역사회 클럽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봉사활동 진행



6) 지역사회 독거노인 중심 전화 안부 자원봉사 활동 전환

- 지역사회 독거노인 중심 코로나 예방법, 기침예절, 봉사활동 지연안내, 안부전화 등
- 무의탁 노인 및 기초연금수급자, 독거홀몸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7)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 경남 합천군 마을내 수해복구 자원봉사
- 충남 홍성군 장마로 떠내려 온 해안가 쓰레기 수거 봉사



8) 지역주민 자주 찾는 공원 및 야외 활동지 중심 환경 정화



9) 코로나 의료진 감사 캠페인

- 코로나 관련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동참
- 코로나 확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참여



3. 코로나19로 앞으로의 노인자원봉사 대응 방향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가 대면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통 및 활동 중심이었다면 언택트 시대의 자원봉사는 이러한 기존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올해에 이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의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기다리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갈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시·도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적인 부분에서의 대대적인 큰 결실과 안정적인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활동에서 새로운 노인자원봉사의 전망과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에서의 활동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경로당, 복지관, 아동 시설이 폐쇄됨으로써 기존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과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을 통한 고독, 우울 심화는

다양한 계층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는 노인 자원봉사 영역의 역할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이스에 가면 그리이스 법을 따라야 하듯이 이제는 코로나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대면, 언택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들이 전개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일 수록 경륜과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인들의 보석 같은 혜안을 바탕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런 변화에 부응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은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가 열리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래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인간성회복과 환경보호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 청결함이 세상에 전파되어 갈 때 사회는 정의로와지고 향기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향기로운 사회는 누구나 건강과 행복,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며, 자연과 더불어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방안으로 캐나다의 미래학자 RUBIN NELSON은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자원봉사적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 상황은 우리 인간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의 삶이 진보할 수 없게 만드는 기초일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급박하게 변한 현재의 상황에서 자원봉사는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환경에 가치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질성회복과 협조적 삶의 가치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모든 현상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자원봉사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대면/야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언택트 방식 비대면 봉사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발전하고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봉사자가 등장하고 확대 될 것이며, 현 상황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자원봉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전한 비대면 봉사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련분야에서는 악기연주 및 공연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적지나 공원 입구에 가늠한 공간을 활용하여 색소폰 연주나 무용, 춤등 가시적인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연합회의 행복나눔봉사단은 소요산과 관악산 등지에서 산을 찾아 등산을 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악기연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연합회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대상 김장지원과 말벗 상담을 하는 등 비대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코로나 상황 이전의 봉사활동 못지 않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봉사활동에서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활성화 시켰습니다. 또한 유튜브 및 동영상제작을 통해 소외되고 침체된 어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미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 언택트 핸즈온 봉사활동으로 나눔 변화에 앞장섭니다.

각종 시설 폐쇄 등 노인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는 핸드온 자원봉사활동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기반으로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스크 만들기, 비누 만들기, 손수세미 만들기 등 핸즈온 자원봉사활동을 진행을 통해 노인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대한노인회에서는 금년도 제주도 독거노인 문화탐방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를 마음 방역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독거노인들의 마음방역을 할 수 있는 반려식물 기르기와 연수 못지 않는 키트 전달 사업으로 진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마음 방역 사업은 금년도 크리스마스 부근에 맞추어 지원이 되어 금년도 연말과 연시를 따듯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맺 음 말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한해입니다. 의미 있는 해에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자로서 수년전부터 한국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오직 노인복지와 권익, 사기증진,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 못지않게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고심하시고 계신 김미령 교수님께서 발제하셔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세미나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현실화되어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반영되기를 주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안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자원봉사사업이 침체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나 재난이나 긴급상황 시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바로 자원봉사덕분입니다. 그 중에 서도 노인자원봉사의 힘은 곧 먼 항해를 하는 기관사와 같이 끈기와 용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단법인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하여 진행된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향후 노인자원봉사의 발판과 기둥이 되어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한 분이 별세하시면 그 지역의 도서관 하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의 자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기점으로 노인자원봉사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년 우리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는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였고 끊임없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여 왔습니다.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위덕대학교 석좌교수

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현)사)휴앤해피 이사장

노인자원봉사 평가 및 활성화

1. 노인복지의 환경적 요소 및 노인복지정책유형

2. 노인자원봉사의 평가

- 1) 할당영역 (Allocation)
- 2) 프로그램영역 (Provision)
- 3) 전달체계영역 (Delivery system)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결론)

績善之家 必有餘慶

착한 일을 꾸준히 하여 쌓이는 집(사람)은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논어)

1. 노인복지의 환경적 요소 및 노인복지정책 유형

현재 우리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는 「고령사회」이다. 이 고령사회는 노인빈곤, 돌봄의 문제, 자살, 노인인권의 이슈와 결부되면서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대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에 가졌던 영향력과 권력을 상실했다. 국가의 복지제도, 재정지원도 욕구에 미달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산업화 → 도시화 → 정보화로 이어지는 사회발전과정에서 「탐승」이 실패,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동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현대화 이론」을 접목시킨다면 첨단기기의 활용방법,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접근실패, 급변한 사회구조에 대한 적응문제 등으로 젊은이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인간의 4고(苦)는 생로병사이다.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어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천리(天理)이고 대자연의 섭리요 불변의 가치다. 이 중에서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고, 늙음은 젊음의 대칭적 용어이며 신병의 고통은 강건의 쇠약으로부터 형성되는 징후이다. 노인이란 라이프 사이클에서 왕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연령계층을 말한다.

노인의 4고(苦)는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의 상실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구에서 발달된 근현대사회 복지정책의 큰 틀은 우리나라에서 다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전후 태어나 역사의 격변기를 살아온 오늘날의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유형을 도표화시켜본다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못한 노인	
빈곤	중산층	빈곤	중산층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선용	국민기초대상 편입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위 표에서 가장 힘든 계층은 빈곤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다. 한 마디로 「좁고 배고픈 노인」이다. 그래도 가장 형편이 나은 노인계층 「건강하면서 중산층에 있는 노인」들이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노인자원봉사그룹은 위의 건강하면서 중산층 정도에 있는 노인을 지칭할 수 있다.

2. 노인자원봉사의 평가

미국의 유명한 사회복지정책학자인 N.Gilbert와 H.Specht가 쓴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에서는 복지정책을 ①allocation(할당영역) ②provision(프로그램영역) ③finance(재정영역) ④delivery system(전달체계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영역에 대입해보면 첫째 할당영역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자는 미미하다.

1) 할당영역(allocation)

통계청 사회조사(2015)에서 노인자원봉사 참여비율이 6.6%로 10년 동안 10% 미만에서 정체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24.4%, 영국 41%, 독일 26%(대한민국정부 2018년)이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거나, 정책이나 제도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노인의 경우 건강, 경제상태가 여유롭지 못하거나 노인의 성격이 권위주의적 성격, 가족주의의식, 수동적 성향도 노인의 자원봉사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기회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증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 여가시간이 있는 노인, 사회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노인의 증가와 사회통합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노력 노인의 지역사회참여증가,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환경적 기회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할당영역의 대상으로 단순히 노인만

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까지 포함시키고 지역 사회기반의 은퇴자, 고령자 봉사단체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인자원봉사자 관련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행정자치부의 전국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3곳의 실태조사통계는 매우 상이하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 (Volunteerism Management System : VMS)과 자원봉사센터의 1365 시스템 간에도 실태조사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참여자의 특성별 활동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해 정책수립의 지표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또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가 전체 노인봉사자의 35.9%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인자원봉사 정책수립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수집된 노인자원봉사 통계는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는 빈약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2) 프로그램영역(Provision)

노인일자리정책이 노인의 경제활동, 소일거리로 사회참여를 하며, 경제적 효과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인의 심리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정신건강과 경제생활 향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정책은 노인인적자원 활용하여 노인이 가진 재능, 경험, 지혜, 지식 등으로 사회참여 및 역할의 기회 제공하고 보람과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는 관심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요처와 공급처의 Miss_Match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홍보는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각급 기관과 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지역신문, 지역TV, 포스터, 전광판, 게시판, 스티커, 유인물, 인터넷, 유튜브 등을 활용하고 기관을 위한 홍보는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노인회조직, 부녀회 등을 통하여 광고할 수 있다. 인적자원 활용은 지역의 유력한 인사, 종교인(목사, 스님), 통반장이 지역의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비전문적이어서 노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계속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전제로 노인이 성취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 체력과 순발력을 적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의 노인자원봉사는 위축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비전문적인 것으로는 말벗, 가정방문서비스, 시설방문서비스, 문화재보호, 지킴이, 교통정리, 행사보조, 홍보, 공원관리, 환경보호, 환경미화,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약방예방계도, 유해환경조사, 행정업무보조, 집수리보조, 재해구호 등이 있을 수 있다. 전문분야로는 창업상담, 청소년상담, 법률상담, 법률교육, 호스피스, 통번역, 한문지도, 외국어교육, 성교육, 취미교육, 사회조사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1년간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노인은 단순봉사 76.8%, 그 다음이 취미, 교육 등으로 지식, 기술을 활용한 준전문봉사가 15.0%, 전문자격증, 직업경험 등으로 한 전문자원봉사활동은 8.1%에 불과했다.(정경희 등, 2015)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중인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활동, 교육부의 마을학습봉사단, 미래과학부의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으나 참여규모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전문 자원봉사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봉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이 준전문가 수준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로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중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시민서비스 및 사회경제적활동(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전문성 보다 단순노력봉사 비중이 높다. 이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검증된 우수봉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노인자원봉사 영역을 구분해 보면 크게 3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인서비스 영역이다. 이는 우호방문, 음식배달, 세탁, 가사일 돕기, 목욕보조, 산책보조 등이다.

둘째. 예술문화 레크레이션으로 음악교육, 민요, 출판물제작, 위문공연, 단전 호흡지도 등이다.

셋째. 상담 및 교육영역으로 단순상담, 초중등교 보조교사, 문맹학습지도 등이다. 그 외 법률상담, 환경보호, 청소년선도, 소비자보호 등도 포함된다.

자원봉사 운영지침(행자부, 복지부)이 공유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인증표준과 보상인정에 대한 표준화규정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봉사활동 인증사항을 노인복지관에서는 35% 정도는 인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복지관에서 외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이동시간을 인증기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8%가 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있었고 식사시간, 평가시간을 포함한 뒤편이 시간도 봉사시간으로 인증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해하기 힘든 것은 노인복지관에서의 생일파티. 나들이, 봉사자 수상 등도 인정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금용, 한국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노년학연구, 제26권, 2017.12)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공익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보호와 보상을 통한 동기화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보호제도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무료건강검진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도 제공해야 한다. 공식적인 보상제도로는 노인자원봉사 신분증발급, 노인자원봉사카드를 만들어 편의시설 할인이용, 세제감면혜택, 노인자원봉사 복장도 있어야 한다. 또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시상을 실시하고 기념메달, 배지, 스카프 등을 제공하고,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역사회 언론기관에서 홍보하고 감사카드나 편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은퇴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실시 지원하는 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정리하여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유인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시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달체계 영역(Delivery system)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의 시급한 과제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원봉사관련법은 「자원봉사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소관 부처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2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산하에도 자원봉사관련기관이 여러 개 혼재해 있다.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조직이 정부부처별로 다양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또 상호간에 연계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

재능나눔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노인사회공헌 일자리사업, 행정자치부의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농림축산식품부의 바다해설사,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및 고령자 교통 서포터즈 등 각 부처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과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과의 민간기관 발굴지원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기본법」은 있으나 「자원봉사지원법」은 아직 없다. 노인자원봉사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지원사업에 관한 평가가 양(量)적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순히 자원봉사 참여자, 봉사시간 등 수치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이 종결된 뒤에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 중심과 함께 과정, 활동(activities)의 질(質)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노인자원봉사와 관련된 조직을 통합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총괄업무를 확대, 개편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고 체계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전국노인봉사단과 미국 은퇴자협회 등과 같은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노인자원봉사관리자, 리더봉사자의 양성과 실천은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 지원센터,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노인자원봉사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메뉴얼을 개발하고 관리자 및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도 상호교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들끼리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안을 한다면 「노인자원봉사단」을 신설하여, 전국의 노인자원봉사조직관리, 노인자원봉사 홍보,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노인자원봉사 교육교재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결론)

오늘날의 노인들은 이전세대 보다 훨씬 건강하고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도 노인이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인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자녀세대를 위한 노인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다. 노인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을 바꿔 노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유용한 존재라는 긍정적 사고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남을 돕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두레」, 「계」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아름다운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해방이후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만이 최선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무한경쟁사회인 자본주의사회에서 패배한 계층을 배려한 복지정책이 모든 소외계층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를 더욱 안락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에 의한 복지공동체실현의 핵심이며 자유의지에 입각한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행정체계,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고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자아발견, 리더십, 인간관계향상기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 노인자원봉사활동도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력인정, 상해보험제도, 자원봉사 저축제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셋째. 노인층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활동의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다양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노인자원봉사자들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자원봉사 연수원을 두어 노인자원봉사자들도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의 질과 봉사영역의 확대는 이제 각국의 선진화지수에 포함될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노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노인에 의한 또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왕성히 전개되어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박 소 영 사무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지난 17년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라 인구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경제적 수준에서 기존의 노인세대와 차이를 보이며, 노후준비 및 자녀부양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자원봉사”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년 기준 74만개의 일자리가 제공 중에 있다, 또한, 안전, 보건, 돌봄 영역 등 사회가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우울감 개선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노인세대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연 단위의 실비수준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노인이 자조조직 모임을 구성하여 스스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7년부터 노인복지관, 2011년에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자원봉사클럽 조직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치매예방활동, 노인건강증진활동, 노인우울·자살예방 활동, 문화예술 봉사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년기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는 지원하는 노인자원봉사자 규모를 2019년 3만 5천명에서 4만 8천명으로 확대하였다. 활동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지원되는 활동비 수준도 전년대비 일부 인상하였다. 하지만 활동내용 측면에 있어 지역 환경개선활동 등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특정 기관 중심의 활동이 많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 봉사활동이 필요한 기관, 예컨대 도서관, 돌봄시설 등과의 연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사업이 시작한지 13년이되는 해이다. 현재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양적인 확대외에도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등에 따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내실화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첫 번째로 신노년 세대를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및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의료 및 재난 구호, 교육 및 학교 분야, 환경 및 자연보호,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전미노인봉사단의 경우에도 비영리 단체, 학교, 정부기관, 종교기관 등의 수행기관을 통하여 범죄자 복귀, 문제아동의 가정복귀, 정보격차 해소 등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기존의 단순 노무제공 중심의 봉사활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 사례와 같이 활동내용을 다변화하고 은퇴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전문자원봉사단 선정 및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발제한 내용과 같이 노인자원봉사를 중점적으로 관리, 육성할 중간 기

관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각 위탁기관은 중앙단위의 협회외에 중간조직으로서 권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마련, 전국적인 프로그램 확산 측면에서 별도의 기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노인자원봉사의 전문화를 위해 기존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각 위탁기관에서 별도의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매년 사업시행 전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교육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 운영 매뉴얼을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업 참여 전 참여자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매년 운영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올해는 기념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행사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9년의 경우에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익년도 활동을 기획하는 선배시민총회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무급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참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지원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보상방안 외에도 활동기관 내의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비금전적인 보상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학습지도, 상담안내 등 대부분 대면활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비대면 활동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은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제, 사회활동의 주체일 것이다. 은퇴 이후에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정책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 결과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또한, 노인사회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협력기관
- ◆ 공지사항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5년 연속)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10.5~6일)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17~18)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11.07)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6년 연속)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10.22~24)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10.31)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11.3)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 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 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 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

1. 신 영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 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사회 : 조중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 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운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

1. 이진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정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선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강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 김기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 발표자 :

1. 차흥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규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성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 발표자 :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

1. 조중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소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동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이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김미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3. 황남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 발표자 :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 발표자 :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

1.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종훈 기자 (중앙일보)
3.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 론 자 :

1. 한국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 발표자 :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 발표자 :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 발표자 :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 론 자 : 김도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 론 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 발표자 :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 론 자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 발표자 :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

1. 이진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은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기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신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태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우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인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경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언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주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 론 자 :

1.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 론 자 :

1. 김현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상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경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근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양점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종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오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동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성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 양찬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 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박미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태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명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은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 론 자 :

1.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병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 론 자 :

1. 김정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허준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 론 자 :

1.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홈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 발표자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혜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대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명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 론 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교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 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 론 자 :

1.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 론 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무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

1. 박헌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준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자 : 백종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 론 자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욱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김병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창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무성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 공 지 사 항 ■

1. 올 한해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 연구회가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 성원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활동내역
 - 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6년 연속)
 - 2)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 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3) 제6회 새터민청소년과 중장년여성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10.22~24)
 - 4)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11.07)
 - 5)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11.3)
 - 6) 복지현안 정책토론회 5회
 - ①코로나시대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20.06. 03)
 - ②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20. 07.21)
 - ③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20.09.24)
 - ④국내외 노인인권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20.10.08)
 - ⑤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20.10.08)
 - 7) 자원봉사활동 연 4회 (설날, 추석 양일, 성탄절)
3. 복지현안 정책토론회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 www.sswkorea.org와 Youtube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